

화가 아버지와 피아니스트 딸 '그림같은 음악회'

서양화가 황순철·딸 상희 내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광주아버지합창단 피아니스트 박의혁 등 참여 '운주 외발' 등 작품 50점 전시

"2016년은 국민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국정농단이 세상을 뒤덮으며 힘든 시기였습니다. 송구스럽지만 올 한해 끝자락에서 딸과 함께 음악회를 엽니다. 그림과 음악을 통해 마음 평온과 즐거움을 얻어 가길 바랍니다."

서양화가 황순철(61)씨는 매년 딸 상희(16)와 피아노 연주회를 열고 있다. 상희양이 4살 때부터 시작했으니 올해로 12년째다.

2년 전까지는 가까운 지인들을 초청해 화실에서 열었지만 지난해에는 빛고를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으로 자리를 옮겨 정식 연주회 모습을 갖췄다.

황 작가가 올리는 더 큰 공간인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29일 오후 7시 30분 '제 12회 그림이 있는 배코 황순철 음악회'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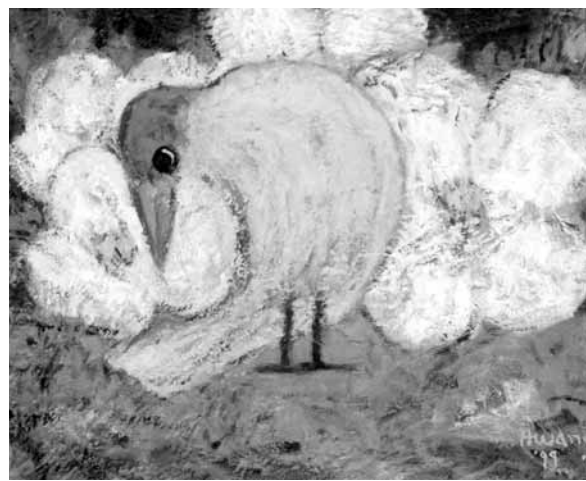
이번 연주회는 황 작가와 상희양을 비롯해 황 작가가 단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광주아버지합창단(지휘 윤원중), 피아니스트 박의혁, 바이올리니스트 이종만씨가 무대에 오른다. 반주는 문선은씨가 맡는다.

특히 지난 4년간 화순 운주사에 머물며 천불전탑 작업을 하고 있는 황 작가는 무대 뒷편에 가로 8m·세로 4.8m 대형 작품 '운주 외발'을 배치해 음악과 미술 접목을 시도한다. 또한 연주회 중간 발표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그려왔던 운주사 작품 약 50점을 선보인다. 광주에서는 처음 공개하는 자리다.

황씨는 "평등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긴 운주사 천불전탑과 최근 벌어지고 있는



12년째 딸과 피아노 연주회를 열고 있는 황순철 작가와 딸 상희양.



황순철 작 '꽃과 새'

춧불 집회 염원이 똑같다고 생각한다"며 "음악과 운주사 그림을 통해 관객들이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주회는 광주아버지합창단이 독일민요 '소나무', 뮤지컬곡 '지킬과 하이드' 중

'지금 이 순간' 등을 부르며 시작한다. 이어 최근 음반 '사계·회상'을 발매한 박의혁 피아니스트가 '봄·여름·가을·겨울'(사계)과 '꿈을 꾸다' 태양을 가지다(회상)를 들려준다.

상희양은 세번째 무대에 올라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7번 '열정', 쇼팽의 '에튀드'(Etude)를 선사할 예정이다. 황씨는 '눈물 속에 피는 꽃'과 '배사대 무죄'로 딸의 연주에 화답한다.

그밖에 광주시립교향악단 악장 이종만씨가 슈만의 'Fantasy pieces op.73'을 연주하고 마지막 무대는 아버지합창단이 '명태', '쥐'를 부르며 현 세태를 풍자한다.

그림과 음악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



황순철 작 '바보佛'

한 황씨는 45살에 얻은 늦둥이 외동딸을 위해 11년전부터 음악회를 시작했다. '창작 스트레스'를 풀고 딸에게는 예술 소양을 쌓아주기 위해서였다. 상희양이 피아노에 재능을 보이자 다섯살이 되던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연주회를 열며 지금까지 함께 무대에 섰다. 상희양은 아버지의 후한 덕분에 제 55·56회 호남예술제에서 피아노 부문 은상을 수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꿈꾸고 있다.

황씨는 "새해에는 민주주의와 평화만이 가득해 우리 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행복하길 바란다"며 "한때는 시국이 이렇다보니 올해 연주회는 그냥 넘어갈까도 했지만 반대로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준비했다"고 조대의 말을 전했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62-360-843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엄한 현실이 갈라놓았던 자들을 / 신비로운 그대의 힘은 다시 결 합시킨다/그대의 고요한 내내가 멈추는 곳/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 노라..."(시인 프리드리히 실러의 '환희의 노래'중)

12월의 어느 날, 23살의 가난한 음악가 베토벤(1770-1827)은 한편의 시를 읽고 심장이 내려 앉는 듯한 전율에 휩싸였다.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노래한 시 구절이 각박한 현실에 지쳐 '드러눕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뒤흔든 것이다. 베토벤은 '절친'에게 편지를 보냈다. "친구여, 나는 이 시를 한 구절도 빠뜨리

떠나 갈 듯했다. 하지만 무대 위에선 단 한 사람만이 객석을 등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청력을 잃은 베토벤이었다. 젊은 여가수가 다가와 그를 둘러세웠다. 거장에게 경의를 표하는 청중들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이 초연된 이날은 음악사에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으로 꼽힌다. 특히 실러의 '환희의 노래'를 가사로 쓴 4악장 '환희의 송가'는 교향곡으로는 최초로 대규모 혼성합창을 도입해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일 년 중 베토벤의 '합창'이 유난

그래도 내일의 해는 뜬다

지 않고 꼭 언젠가 음악으로 만들겠네."

하지만, 베토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위기를 맞는다. 26살 때부터 괴롭히던 귀병이 악화돼 서른 살 무렵엔 거의 들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음악가에게 청력 상실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

아니나 다를까, 32살 때 자살을 시도하며 쓴 유서에는 당시 절망이 어땠는지 생생하게 담겨 있다. "이 재앙은 그 어떤 것보다 예술가에게 치명적이다. 남들보다 훨씬 풍성해야 할 감각 하나가 없으니... 죽을 이외엔 다른 길이 없구나."

그러나 그는 초인적인 의지로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우기로 마음을 다잡았다. 너무 작대기 한결은 피아노 위에 닿게 하고, 다른 한결은 입에 붙였다. 입술의 미세한 떨림을 통해 피아노의 진동을 느끼며 악보를 채워나갔다.

그로부터 31년이 흐른 1824년 5월 7일 오스트리아 빈 극장. 연주가 끝나자 환호와 박수갈채로 객석이

히 많이 울러 퍼지는 때가 이맘 때다. 유명 교향악단들이 헨델의 '메시아'와 '합창'을 레퍼토리로 송년 무대를 장식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온갖 시련 속에서도 불후의 명곡을 탄생시킨 악성(樂聖)의 '인간승리'가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세밀과 맞아떨어진다.

바사다난했던 2016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불황의 깊음 그들과 회대의 민간인 국정농단까지 겹친 금년처럼 격동의 해가 있었던가 싶다. 이럴 때 고단해진 심신을 '합창' 교향곡으로 추스려 보는 것은 어떨까? 마침 오는 3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제야음악회에서 광주시향이 베토벤의 '합창' 4악장 '환희의 송가'를 연주한다. 만일 공연장 찾는 게 여의치 않다면 CD나 음원으로 내일의 '희망'을 가슴에 품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난청이란 '절대 절망' 속에서도 환희를 잉태한 '불멸의 작곡가'를 떠올리면서.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구례 운조루→구례 운조루 고택' 문화재 137건 명칭 바꾼다

문화재청은 27일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명칭 137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변경 예고했다.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명칭 조정안은 해당 문화재 명칭을 더욱 알기 쉽도록 소재지를 사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어 시·군·구 이름을 쓰거나 마을 이름을 붙이곤 했다.

또 문화재 성격에 따라서 종택, 고택, 생가, 재사(재사)를 지내는 묘소 옆에 지은 집) 등을 부여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의

도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구례 운조루'는 '구례 운조루 고택'으로, '신안 김환기 가옥'은 '신안 김환기 고택'으로 바뀌었다.

또한 문화재 지정 당시 소유자 이름으로 된 명칭은 고증자료를 확인해 고택과 관련된 역사적인 인물을 찾아 그 인물과 관련된 명칭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낙안 성 박의준 가옥'은 '순천 낙안읍성 이방택', '화순 양동호 가옥'은 '화순 양잠사택' 등으로 바뀐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에스24 e연재 공모전 ... 웹 콘텐츠 작가 발굴 나서

인터넷서점 에스24는 '제3회 에스24 e연재 공모전'을 개최하고, 새로운 웹 콘텐츠 작가 발굴에 나선다.

에스24가 주관하고, 출판사 위즈덤하우스 등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일러스트레이터 흑요석, Ciel, Kira 등과 협업을 통해 '로맨틱 플라보'라는 부제에 어울리는 작품을 선정한다.

'에스24 e연재 공모전'은 기성 작가 및 신인인 물론 단독이나 공동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장편의 경우 원고지

800매 내외(30화 차 분량)로 로맨스 장르 내에서 역사, 현대, 판타지 가운데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정해 등록할 수 있다. 단편은 '숫자'라는 주제에 맞는 이야기로 장르에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으며, 원고지 300매 내외(10화 차 분량)로 작성하면 된다. 작품은 에스24의 'e연재 플랫폼 자유연재 (estory.yes24.com/eFreedom)'를 통해 2017년 3월 31일까지 응모 가능하다. 최종 수상작 발표는 5월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준석 작가와 함께하는 판화체험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이 28일 오후 5시 5분 전시실 입구에서 '이준석 작가와 함께하는 판화체험'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5전시실에서 2017년 1월 29일까지 초대전 '이준석, 오월그림-가슴마다 꽃으로 피어있으리'를 여는 이준석 작가가 참여한다. 5·18

민주화운동 주제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이 작가는 전시 중인 판화 원판을 이용해 참가자들과 직접 찍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미술관은 오후 6~8시 전시 설명과 함께 행사 참가자 전원에게 '이준석, 오월그림'전 전시도록을 제 공할 예정이다. 문의 062-613-714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건)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참숯구이 전문점 그리고 최신도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